

예비교사의 교직실무수업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오경희 · 한대동[†]

(부산대학교)

A Qualitative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in a Teaching Practicum Course

Kyoung-Hee OH · Dae-Dong HAN[†]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is a qualitative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in a teaching practicum course which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 that has been recently revised as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 Data were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who took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including the teaching practicum course by using both a survey on the opinions and suggestions of the students on the teaching practicum and a in-depth interview with 12 students of th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 of a teaching practicum course was divided into two sides : functional side and sociocultural side. The formal is that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significantly handed to discipline practical jobs related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latter is that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significantly handed to deal for teachers like pay step, extra pay, vacation, and leave of absence.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s had suggestions that were divided into the 'curriculum content' and the 'instructional method'. For instance, regarding the 'curriculum content' they suggested such things needed as 'lessening and differentiation of content, sensitive about the scene, and lesson hands-on', and as for the 'instructional method' they suggested such things needed as actively 'doing, participating, assessing, coursework participating'.

Based on these results, I have comprehended the pre-service teachers' positive response. Untill now, we have perceived that the professional education courses is excessively theory-oriented one. But a teaching practicum course is different. Meanwhile, It is not identify what the teaching practicum course as teaching refinement education course is. Due to this cause, I have comprehended that 'curriculum content' and the 'instructional method' is plunged in confusion. As pointed out this, I did concrete proposals in response to such a confusion. This proposals have helped decided on a direction of a teaching practicum course .

Key words : The teaching practicum education, The teaching refinement education, Pre-service teachers' experiences, Opinions and suggestions.

[†] Corresponding author : 010-2884-7535, ddhahn@pusa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현장의 현실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Sirotnik, 1990; 김병찬, 2003; 장혁표 외, 1992; 정미경 외, 2011)는 것이다. ‘교직소양과목’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2008년 개정된 ‘교원자격 검정령’에 따라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교직소양과목’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강화’를 강조하며, 예비교사들에게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이러한 교직소양과목들은 ‘소양’과 ‘현장 적합성’이라는 다소 양가적 특성으로 인해 과목적 특성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교직소양과목 중의 하나인 특수교육학과목은 ‘소양’과 ‘현장 적합성’이라는 다소 양날의 검과 같은 두 측면에 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교사 양성과정기관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및 교직소양 과목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일반교육 교원양성구조에 특수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것을 제안(박석일, 2010)하거나, 교직과목 이수를 통해서 학생들이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통합학교교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강조(손승현·서유진·나경은, 2010)하는 연구 등을 통해, 교직소양과목으로서 특수교육의 과목적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학과목이 교직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학급 교사도 이제 특수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Miller & Stayton, 1998)”와 관련된 논의들이 재론되고 있다. 성공적인 통합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들(김호

식 외, 2007; 이대식, 2002)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한편,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과목은 ‘소양’과 ‘실무’의 용어에서 오는 다소 이질적인 의미로 인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들’간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의 기준에서 다소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용어의 의미상의 규범을 공유하지 못할 경우, 맥락적 특정성에 따라 이해의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직실무 역시 과목의 성격을 보면 ‘교재가 담고 있는 내용’과 ‘가르치는 자의 소양’에 따라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통상적 의미의 차원에서 교직소양으로서 교직실무를 정의하면 ‘교직사회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지식이나 교양과 같은 소양(素養)을 기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두 측면에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사의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소양’ 중심의 실무인지, 또는 ‘업무’ 중심의 실무인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교직실무 내용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교사의 직무를 교과지도를 포함한 학교 생활 및 행정 실무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포괄적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사의 학교 행정 실무에만 국한시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대답에 따라 교사의 직무 범위가 정해지게 되며, 교직실무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영역이 정해지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은 교직실무 내용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소양’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교과내용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소양’ 중심의 실무내용은 교사의 역량강화와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중심을 두고 편성되게 되며, ‘업무’ 중심의 실무내용은 교사의 학교 행정 및 사무 처리에 우선을 두고 편성되게 된다.

물론 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두 측면(소양과 업무)이 분리되어질 수 없듯이, 교직실무과목 역시 두 측면 모두 포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재와 같이 교과내용과 가르치는 사람의 소양과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교과내용의 편성에서나 수업의 전달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교직 '소양'에 중심을 둔 교과내용을 편성할 경우, 교직윤리, 헌신도, 교직원, 봉사정신, 자기계발 등과 같은 내용들이 교과 지식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수업방식은 교사 주도적인 이론전달방식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고 교직 '업무'에 중심을 둔 교과내용을 편성할 경우, 교직에 필요한 실제의 업무나 사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교과 지식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수업방식은 예비교사 주도적인 체험 또는 참여 수업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에 관한 질문은 '소양' 또는 '실무'의 성격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과 지식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데 필요한 단서를 마련해 준다. 왜냐하면 용어에 대한 개념적 또는 암묵적 동의는 곧 그 학문적 성격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과목의 향방을 잡아 나가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직실무과목을 수강하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직실무수업의 경험을 인터뷰하였다. 무엇보다 교직실무과목의 수요자인 예비교사들의 인식과 제언이 향후 교직실무과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가장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과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설과목으로서 아직은 이에 관한 관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교직실무과목이 "교직과목의 이론중심적 특성으로 인한 현장 적합성의 부족"(Sirotnik,

1990; 김병찬, 2003; 장혁표 외, 1992; 정미경 외, 2011)에 대한 반응으로 개설된 만큼, 교직과정에 관한 연구 중 현장 적합성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학 과목의 수업이 너무 이론적"(Hermanowics, 1966; Lotie, 1991; 재인용)이라는 문제제기가 되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같은 교직소양과목인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연구들(김남순, 2010 ; 손승현·서유진·나경은, 2010)을 통해,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과목의 향방을 정하는 데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직과정에 관한 연구 중 현장 적합성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혁표 외(1992)는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의 교직이론 영역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개선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들은 직전 교사교육을 위한 교직과정 내용에 대한 탐색을 통해 교직과정 모형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직과정 모형의 평가를 위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대학의 교직과목 이수내용이 학교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거나(15.0%) 또는 비교적 활용되지 않는 것(53.9%)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현장의 많은 요소들이 배운 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26.9%), 교직과목이 너무 이론적이라서 실제 현장에 활용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25.1%), 교직과목의 강의방식이나 운영이 형식적이며 비효율적이라서(19.0%), 교육현장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이나 지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15.0%)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은 교직이론과목의 현장 적합성의 부족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김병찬(2003)은 일반대학 학생들의 교직과정 이수 동기 및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일반대학 교직과정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교직과정이 교사 준비 과정

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인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직과정이 교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제대로 준비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병찬은 교직과정제도를 개선하고, 교직과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중의 한 가지가 교육이론과 교육현실의 연계 구축이다. 그는 교사양성과정에서 학교 현장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노력이 촉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미경 외(2011)는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영역의 적정 비중과 강조되어야 할 교육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은 '전공과목 및 교과교육학과목의 확대, 현장 전문성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직과목의 내용 강화 및 교직과목의 정체성 확립, 교원을 위한 교양과목의 내용 개발 및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두 번째 주장은 '교직실습 비중 확대와 교직과목에서 보다 실제적인 것에 대한 요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직이론 과목들이 교사들의 직무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나 방법이 실제적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과목은 협의의 교직소양인 교사로서의 됨됨이에 관한 것으로, 말하자면 교직 수행에 있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사 역량을 기르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말하자면 교직실무과목은 '소양' 중심의 교직실무로서 교사의 투철한 교직관, 헌신, 봉사정신 등과 같은 것이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같은 교직소양과목으로서 '특수아동의 이해'를 위해 개설된 특수교육학개론과목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승현·서유진·나경은(2010)은 교직소양과목으

로서 특수교육학개론 과목의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대학에서 개설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강의계획서 중 CEC/INTASC의 특수교육 핵심교육내용 기준에 따라 수업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강의계획서를 선별하였고,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특수교육 교직과목의 수업목표, 내용,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성, 배출하는 데 필요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목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남순 외(2010)는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및 교직소양 과목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일반교육 교원양성구조에 특수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교사 양성기관(초등교사 양성기관 12곳과 사범계 중등교사 양성기관 113곳을 포함한 총 125곳) 교육과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및 전화 상담과 각 기관별 홈페이지 방문을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고시 개정 전보다 고시 개정 후, 중등교사양성의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설치가 많이 늘어났지만, 전임교원의 확보 및 필수 이수 학점의 부족으로 교과내용의 질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직이론과목의 현장 적합성 부재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이론과목의 실제적 대안으로서 생겨난 교직실무과목을 교직을 위한 '소양'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봄으로써 교직실무과목 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직소양과목으로서 특수교육학개론과목에 대한 논의들은 특수교육 교직과목 운영 방안 또는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들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교직실무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배우기를 원하는지를 대한 실제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직소양과목으로서 실무과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교직실무과목 이수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 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면담을 주(主)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면담 대상자로는 교직실무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일반대학 및 사범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교직실무과목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험이 교직과목으로써 실무과목의 실재를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이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들은 2011학년 2학기 동안 P대학교에서 교직실무과목을 수강한 일반대학 및 사범대학 학부생 12명이다. 이들은 예비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분류화 작업 및 글쓰기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학생들이다.

먼저, 예비 설문조사 과정에 참여한 학생들 수는 2분반 총 52명이며, 이 중에서 2학년은 총 24명(남학생 1명 포함), 3학년은 28명(남학생 2명 포함)이다. 예비 설문조사 기간은 2011년 11월 14일~ 11월 18일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총 20명의 심층 인터뷰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 대상자 선정 준거는 ‘학과의 다양성, 성별(대부분 여학생들이라서 남학생들(3명)을 특히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학년(총 20명 중, 2학년 7명, 3학년 13명), 설문에 대한 답의 충실도, 비교적 비판적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다. 이 준거는 상이한 인식을 수용하는 “과정적인 것을 통해 보다 객관성의 관점을 확보”(Popkewitz, 1988)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예비 설문조사 실시에서는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여, 다양성을 고려한 선정

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실제 심층 인터뷰에 참여(2011년 11월 21일~12월 17일)한 학생들의 수는 총 15명이었으며, 반복적인 분류화 작업과 다시 쓰기 과정에서 첨가와 반복을 통해, 2학년 4명(남 1명 포함)과 3학년 8명(남 2명 포함), 총 12명의 인터뷰 내용만이 보고서에 실리게 되었다.

다음 <표 1>은 이들 12명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름은 질적 연구의 윤리적 전통에 따라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전공 및 선수과목 수

순번	성명	성별	학년	전공	선수과목
1	이은지	여	2	국어국문	1과목a
2	장설희	여	2	예술문화영상	3과목b
3	김가희	여	2	미술	2과목c
4	오덕현	남	2	물리학	4과목d
5	정영신	여	3	한문	7과목e
6	박수미	여	3	지질환경과학	5과목f
7	최영선	여	3	수학	7과목e
8	채승기	남	3	조선해양공학	4과목g
9	양유진	여	3	주거환경학	7과목e
10	정경신	여	3	화학	7과목e
11	진윤정	여	3	미술	7과목e
12	김성식	남	3	대기환경과학	7과목e

*알파벳은 선수교과목명 범주코드(예를 들면, a:교육학개론/b: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c: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d: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e: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생활지도 및 학생상담, 특수교육학개론/f: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행정, 생활지도 및 학생상담, 특수교육학개론 /g: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인터뷰 방법 및 자료 분석

가. 인터뷰 방법 및 절차

먼저, 포커스 인터뷰(focus interview)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 학기 동안(2011학년 2학기) 교직실무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조사(2011년 11월 14일~ 11월 18일)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 내용은 교직과목 및 교직 실무과목에 관한 것으로 보다 포괄적인 질문(주관식 서술형)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수집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 '교직과목'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교직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직과목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교직 과목 중 어떤 과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교직과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직과목과 관련하여 그밖에 더 알려줄 것이 있습니까", '교직실무과목'과 관련된 질문으로는 "교직실무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직실무 과목이 교직과목으로 따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교직실무 과목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직실무 과목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직실무 과목이 교직과목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직실무과목과 관련하여 그밖에 알려줄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들과, 이와 관련된 하위 영역의 질문들을 통해, "왜?"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찾아나갔다.

다음으로, 심층 인터뷰는 개별 인터뷰로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주로 학생들이 수업이 있는 월요일~목요일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 12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균 인터뷰 소요 시간은 1회 약 2시간~2시간 30분이며, 인터뷰 형식은 비형식적인 대화로서 이루어진 반 구조화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예비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 이해한 가운데 인터뷰의 주제적인 측면과 연구자의 의미의 명확화 과정에서 얻어진 대화의 흐름을 위한 적합한 질문형식을 고려하여 재구성되었다. 다음 <표 2>는 심층 인터뷰를 위한 질문 내용들

이다.

<표 2> 심층 인터뷰를 위한 질문내용

-
1.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2. 그런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직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교직실무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3-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 수강중인 실무과목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5. 교직실무 과목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5-1. 내용적 측면에서 또는 방법적 측면에서
-

본 인터뷰과정에서는 이러한 질문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비설문조사를 통한 선지식에 의존해, 학생들의 생각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세부 질문들을 유연하게 해 나갔다(예를 들면, "실무과목에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하위 질문으로 "수업부분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또다른 하위 질문으로,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다면, 왜?"에 대한 또 다른 하위질문으로, "만약 수업이 짜여진 수업이 아니라 '일상수업'이라면 필요한가?"와 같은 그물망처럼 연계되는 질문 형식).

그리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사전 양해를 통해 녹음하였으며, 녹음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 및 연구자의 생각들은 따로 메모를 했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시의 상황적인 것과 개인적인 특성들(특정한 감정과 편견)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연구 대상자들이 표현한 자연스러운 "의미단위"(신검림, 2007)를 연구자가 결정하거나 해석할 때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주제와 관련하여 특정한 기대나 선입관에 의해 내용을 선정하거나 해석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메모를 해 둔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상세한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체험의 실재성"(Dilthey, 2005)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반복적인 읽기와 심층적 이해를 통

해 자료를 범주화해 나갔다. 범주화 작업 역시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개념을 찾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자료의 분석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의 오류를 최대한 막기 위해 인터뷰 대상자와의 (전화로 통한) 재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자료분석 및 글쓰기

자료분석 과정은 이해와 해석을 기반으로, 서로 구별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의 관계에 의거하여 다시 범주화 해 나가는 반복적인 분류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Giorgi가 제시하는 질적 연구 인터뷰에서의 이해의 방식인 현상학적 분석의 5가지 기본단계인 '구술자료 수집하기, 자료탐독하기, 자료를 몇 가지 종류의 부분으로 분해하기,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을 적용하여 자료를 재진술하고 구조화하기, 학자 집단과의 대화할 목적으로 자료를 합성하고 요약하기'(신경림, 2007)의 순환적 또는 조정적 과정의 특징을 갖는다. 말하자면, 의미의 생성과정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류된 진술들에 대한 맥락적 이해는 또다른 해석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되고, 보다 더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기 위해 '다시 돌아가기와 다시 조정하기'를 반복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교직수업 관련 연구자 한 명의 지속적인 조언과 평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또한 마지막 글쓰기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글쓰기 과정은 연구자의 반성적 사고를 촉발하는 것으로 분석에 대한 분석의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연구자의 고심의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딜레마에 대한 반응물을 생성해 내는 과정인 것이다. 또한 완성된 보고서 역시 조언과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의 반복적 과정을 거쳐 나온 두 파트너의 협상의 결정체이다.

Ⅲ.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인식과 제언

1.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인식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교직실무과목이 일반 교직이론과목들에 비해,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과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들은 일반 교직이론과목과 달리, 교직실무과목이 교직의 "직업 사회화(work socialization)" (Lotie, 1991)에서 오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 여긴다. 왜냐하면 교직에 입문했을 때, 필요한 행정 업무 및 교원 인사행정 등과 같이 보다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교사들의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인식은 크게 '기능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가. 기능적 측면

1) 배워두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교직의 전문성은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노동자와는 달리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의 교직생활에서 핵심적인 일 중의 하나는 사실상 행정적 업무이며, 이는 주로 문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성하고 처리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일정한 표준적인 틀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교직입문과 동시에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행정적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직실무수업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일단은 과목명이 실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서 작성같은 거는 굳이 교직이 아니라도 다른 데 가게 되도 써먹을 경우가 많잖아요. 공문서니까. 그런 걸 미리 배워놓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양유진, 주거환경학과, 3학년)

아무래도 다른 (교직) 과목은 역사, 철학처럼 멀게만 느껴지다가, 교직실무과목에서는 좀 더 가깝게 느껴졌고, 가장 실질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했어

요.....그런데 교육 방법이라는 과목도 들었는데 그 과목도 실무와 비슷했지만 좋은 방법을 도입하기엔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행정적인 과목을 배우기도 하는데 그것을 언제 쓸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했었어요 그런데 실무 과목은 이것을 언젠간 꼭 한번은 써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더욱 배워 두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진윤정, 미술과, 3학년)

예비교사들이 교직실무과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교직과목과 달리 현장의 생생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양유진은 교직실무수업에서 하는 공문서 작성과 같은 행정 및 사무관련 일은 능률적인 교직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게 되도 써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보고 있다. 진윤정 역시 비록 다른 교직수업에서 실무를 다루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며, 교직실무수업은 “언젠가 꼭 한번은 써야 할 것 같고, 배워두면 좋은,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예비교사들의 이와 같은 인식은 교사 전문성 및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관한 직업정체성 논의를 재등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2)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능력을 배워요.

예비교사들은 교직 업무(또는 실무)를 수업과 행정으로 나누며, 행정을 사무 처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들은 수업 업무와 행정 업무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직을 수행함에 있어 수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 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를 잘 해야 하는데, 이때 교직실무과목은 이러한 행정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일이 받은 수업의 일이지만 받은 행정과 관련된 일이지않아요. 모르고 나갔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물어보면서 자기 혼자 굉장하 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수업에 대한 연구도 줄어들 문제가지 않아요.(이은지, 국어국문, 2학년)

근데 저는 충격을 먹은 게, 고 3 담임선생님들은 진로 빼고 업무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루는 선생님이 상담을 해야 하니가 가라고 하셨는데, 한글창이 다른 게 10개가 떠 있었어요. ‘저걸 언제 다 하지?’ 생각했는데.....그래서 (교직실무수업을 들으면서) ‘대학교에서 실무를 안배우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김성식, 대기환경과학, 3학년)

이은지와 김성식은 교직을 수업과 행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행정을 실무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행정적 업무를 잘 처리해야하는 것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행정보다는 수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김성식의 경우, 교직을 수업과 수업 외 업무로 나누며, 수업 외 업무를 학생 상담과 같이 학생들과 관련된 업무와, 공문서 처리와 같이 교직에 필요한 사무 관련 업무로 나누고 있다. 이때 사무관련 업무를 실무로 보고 있었다.

요컨대, 예비교사들은 교직을 ‘수업과 수업 외 업무’로 나누고 있었으며, 수업 외 업무 중에서도 특별히 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 및 사무 관련 업무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직실무과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사회문화적 측면

1) 학교현장의 사이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Heller(1970)에 의하면, 일상의 지식은 사회적 삶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기적 전체 속에 속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보다 더 오래가고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Tacussel, 1989; 171 재인용).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비교사들의 학교현장의 일상생활에 대한 선 체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학교현장의 일상생활은 개인적 지식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서화된 지식과는 달리, 체험과 생활이 지속적으로 교차하여 만들어진 상호 전환적 특성을 가진 문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획득되어 화석화되어버린 이론적 지식과는 다른 통로를 가진다.

저는 교직실무가 되게 참신하다 생각해요.....교사

가 해야 할 일, 진짜 교사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 같아서, 교사들의 현실을 알게 돼서 신기한 거 같아요.(박수미, 지질환경과학, 3학년)

말 그대로 학교 일상에 관련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생실습 전에 듣는 거니까,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 현직 교사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아시고, '이 학교는 이렇다 저 학교는 저렇다'라고 정보를 알려주는 과목이라 생각해요.(채승기, 조선해양공학과, 3학년)

박수미는 교직실무수업을 통해 교사들의 일상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직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채승기는 실무수업을 통해 실습 나가기 전, 다양한 학교에 대한 사전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교 교직사회화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예비교사들이 학교현장 교사로서 거듭나는 전환과정은 '현실 충격'(reality shock)으로서, 초임교사들은 이 기간 동안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Veenman, 1984; 황순영, 2006; 307 재인용). 이때 교직실무수업은 학교 현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여, 예비교사들이 교직적응과정에서 Lotie(1991)가 언급한 "가라앉기 또는 헤엄치기 (sink or swim)"에서 헤엄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 교사들의 처우에 관해 알 수 있게 해줘요.

교직 전문성에 대한 강조는 주로 교사들의 전문지식의 향상과 전달방법의 효율성에 치우쳐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자기분야에 대한 긍지와 헌신이 필요하다. 긍지와 헌신은 사명감으로부터 나오며, 사명감은 높은 명성과 경제적 지위보장이 확보될 때 더 강력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직실무수업은 교원으로서 교사들의 개인적 삶과 관련되어 있는 처우에 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예비교사들이 입문하게 될 교직에 대한 자긍심 부여와 함께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삶을 계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행정적인 업무들이랑 교원제도, 이런 것도 처음 알게 됐고, 호봉 이런 거 책정하는 것도 알게 됐고, 수업 외에 다른 할 일들이 되게 많은 데 그게 뭔지 알게 됐어요.(진윤정, 미술과, 3학년)

제가 교무실 출입을 좀 자주 해서, 뭐 월급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배우고..... 월급같은 보수제도, 공무원 연금, 호봉제도, 수당, 진급,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마디로 월급 받는 제도속에서의 선생님, 공무원으로서의 선생님들의 어떤 것을 알기를 바랐어요. 전 그런 것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월급 이야기나 애교파인에 들어가는 것도 들으니까.(정영신, 한문학과, 3학년)

예비교사들에게 "교직실무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다수의 예비교사들은 교원들의 처우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답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직업인으로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동시에 교직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가이기도 했다. 진윤정과 정영신 역시 교직실무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교사들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꼽았다. 이들은 다른 교직수업과 달리 교직실무수업은 호봉, 수당, 휴가 및 휴직 등과 같이 교사들의 처우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교직 선택에 있어 현실적인 고려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2.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제언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제언들은 그들의 교육적 경험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다른 어떤 제언들보다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과목적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개인적 경험의 독특성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들의 제언은 교육적 경험에 의한 산출이라는 점에서 실무과목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교육적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제언들을 범주화하면 크게 '수업 내용적인 측면'과 '수업방법적인 측면'으로 나누

어진다.

가. 수업 내용적 측면

예비교사들은 실무수업의 내용은 경험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질문 3, 3-1에서). 그러나 ‘어떤 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느냐? 라는 하위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예비교사들의 경험과 의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교직실무과목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교과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실무’라는 용어를 ‘이론’과 이분법적 의미로 사용할 때, 교직실무는 교직이론과 대응되는 의미를 지니며 그 이해의 범위가 포괄적일 수 있다. 말하자면 해석의 복수성에 의해 내용선별의 기준이 다양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서 예비교사들은 현재 실무과목 교과내용이 중복되어 있고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언급했다. 이들의 제안은 현재 교직실무과목의 교과 내용적 측면에서 과목적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한 예가 된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두 권으로 나누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 해설서 같이 딱 부류를 나누면 조금 더 인지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이은지, 국어국문, 2학년)

이해하는 건 문제 없었습니다...내용의 난이도 보다는 양이 많았습니다. 그냥 실무이긴 실무인데 이론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 실무를 도출해낼 수가 없는 거 같아요.....어쨌든 이론적으로 중복되는 건 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실무적으로요.(오덕현, 물리학, 2학년)

위 사례에서 예비교사들은 현재 실무교과목의 내용이 이론과 실천이 함께 편성되어 있어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통해 교직실무과목의 특성을 살리기를 기대했다. 예를 들면, 이은지의 경우, 교직실무와 관련된 이론만 다루고, 이론이 아닌 내

용들은 해설서를 따로 편성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덕현의 경우, 내용의 분량이 너무 많아 무엇이 이론이고 실무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요컨대, 이들은 이론과 실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교직실무과목에서는 실무 위주의 내용을 실어서 내용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2) 교과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해요.

한 교과에 모든 교과내용을 실을 수는 없다. 그런데 교직실무교과에는 다양한 교직과목의 이론들을 포함함으로써 정작 실무과목만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교직실무과목이 실무다운 내용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교육행정과목과는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마치 또 다른 교육행정수업을 이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¹⁾

교육행정하고 같이 듣는데 거의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행정을 안 듣는 학생한테 좋을 수 있지만 같이 듣는 학생한테는 시험 외에는 좋은 게 없다고 봐요. 차별성이 뚜렷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과목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요.....그렇다면 차라리 한 과목으로 뭉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최영선, 수학과, 3학년)

실무 수업 열심히 듣고 행정수업 갔는데 교직실무 듣는 것 같고, 또 행정수업 듣고 실무 수업 갔는데 교육행정 듣는 것 같고, 이게 헷갈리기도 하고 겹치는 내용도 많고.....교육행정에서 듣고 실무에서 듣는데 실무에서 두 번 들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다른 과목에서 배우고 온 걸 하

1) 왜냐하면, 현재 교직실무과목의 교재 내용을 보면, 크게 ‘수업영역,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영역, 학부모 상담 및 지역사회 영역, 학교행정 영역, 교직기초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업영역’은 교육행정과 교육과정, 교육공학학부, ‘생활지도 및 학급경영 영역’은 교육행정과 교육심리부, ‘학부모 상담 및 지역사회 영역’은 교육사회와 교육심리부, ‘학교행정 영역’은 행정부, ‘교직기초영역’은 교육행정과 교육사회부 포함되어 있다(강경석 외, 2011; 강봉규·강명희, 2011; 김명수 외, 2010; 김종운 외, 2010; 김현수 외, 2011; 송기창 외, 2009; 이명자 외, 2010; 이병환 외, 2010; 주상탁·이칭찬, 2009).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이론들이 모여 있으며, 특히 교육행정과목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거의 전 영역에 포함되어있다.

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김성식, 대기환경과학이네요. 3학년)

최영선과 김성식은 3학년이다. 이들은 교육행정 과목을 들으면서 동시에 교직실무과목을 듣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교육행정과목과 교직실무과목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영선의 경우, 교육행정과목과 교직실무의 통합 편성을 제안했으며, 김성식의 경우 중복된 내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3) 현장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해요.

교직실무능력은 전문교육자로서 현장에서 필요한 교직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교직수행 능력에는 수업이 핵심적인 직무이기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예비교사들에게 학교현장에서 겪게 될 업무수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교직실무는 최신성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저는 느껴요. 현장성이란 게 떨어지면 과목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니깐 '개정'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참 힘들긴 한데, 이론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영신, 한문학과, 3학년)

학생들을 겪으면서 힘든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책 내용에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체벌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학생들이 너무 기어오른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김가희, 미술학과, 2학년)

정영신과 김가희는 교직실무과목이 실무다워지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에 관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영신의 경우는 실무와 관련된 내용의 최신성을, 김가희의 경우는 일

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현재성을 강조했다.

4) 수업실무가 필요해요.

교직실무는 크게 수업실무와 행정실무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직실무를 이해할 때 대부분 공문서 처리 및 사무관련 내용에 제한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이러한 협의의 관점에서 교직실무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수업실무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례들이다. 비록 교직실무를 '수업실무' 중심으로 인식하는 수가 '행정 및 사무 관련 실무'로 인식하는 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지만(12명 중 3명), 이들의 인식은 현재 교직실무내용을 재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단위 한 단원이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비중은 줄이고, '학급 담임이라면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무이면서도 실제와 동떨어진 내용이 있는 거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제가 한 번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제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아니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정경선, 화학과, 3학년)

저도 실무가 행정이라고만 고정적으로 생각해서 별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수업 현장성과 관련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저는 진짜 수업중심으로 가면, 그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이란 걸 대폭 줄이고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수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실무는 없어지지 않고 수업중심의 실무가 되겠죠.(정영신, 한문학과, 3학년)

정경선의 경우, 교직실무 내용에서 수업경영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업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무내용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예비교사들은 전공별 수업시연 경험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며 수업자체도 계획되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진 고정화된 수업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다양한 상황들을 포괄하는 수업 경험을 기대하고 있었다. 정영신의 경우, 교직실

무과목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교직실무과목이 교직을 행정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교직실무과목이 교직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실무를 효과적으로 다룬다면, 즉, 효과적인 수업경영을 위한 수업 중심의 수업실무가 된다면, 교직실무과목은 교직과목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나. 수업 방법적 측면

예비교사들의 교직실무수업에 대한 공통적인 제언 중의 하나가 ‘수업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예비교사들은 수업의 전 영역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는 실무수업이 되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체험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체험화되는 일상생활”(Lefebvre, 1998)처럼, 수업에서의 체험의 누적은 학교 현장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예비교사들이 제안하는 교직실무수업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화한 것이다.

1) 직접 해 보는 수업으로

예비교사들은 학교행정 및 사무관련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론적 전달 방법 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공문서 작성이나 업무시스템(업무관리 및 에듀파인) 사용 등과 같은 내용들은 실제로 해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교직실무라는 과목이 이론으로 전달되지만, 우리가 실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학생들도 이 교실을 하나의 교무실로 생각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해보고, 가상의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보기도 하고(해서), (보고서들) 제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해 봤어요..... 막상 행정이라고 해서 하는데..... 실제 연수에서 하듯이 하면 한 시간 내용을 삼십분으로 줄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해서, 시간도 줄이고 다양한 활동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최영선, 수학과, 3학년)

나이스 프로그램 같이, 많은 교사들이 쓰는 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모의토의처럼 그런 가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실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회계나 공문서를 작성해서 보여라’라는 과제를 내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인 것만 배운다기보다 실제로 교사들이 쓰고 있는 내용들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진윤정, 미술과, 3학년)

최영선의 경우, 교실을 교무실로 전환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사용해 보고, 그 경험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형식의 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윤정의 경우, 가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실습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며, 과제를 내어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요컨대, 위 사례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직실무과목은 수업방식에서도 실무다운 방식, 즉 체험 위주의 활동중심 수업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모두 참여하는 토의 수업으로

예비교사들은 실무수업의 전달방법은 발표보다는 토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에게 실무와 관련된 내용들은 내용의 수준을 떠나 생소함 그 자체가 때문에 내용과악에 어려움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실무이론수업은 (교수의) 일제식 전달 방식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토의수업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별로 나눠서 찬반형식으로 나누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형식으로 하고, 후에 교수님이 정리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면서 가르치는 형식으로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론은 교수님이 해주시고, 교직실무하면서 토론 주제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성과급제, 나이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다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오덕현, 물리학과, 2학년)

발표수업은 빼도 되지 않을까요.....제 발표는 제가 공부한 것이고 내가 요약한 것이니까 이해하

는데, 다른 사람들이 요약해 써서 발표 한 내용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수업이 100분인데, 4~50분 정도는 수업을 하고, 어떤 사례를 제시 해주고, 배웠던 것과 연관 지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게끔 하는,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든가 해서..... 힘들겠지만 자원해서 얘기를 하게끔 그렇게 어떤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이은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오덕현과 이은지는 실무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의 발표는 실무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실무수업인 만큼 수업방법이 학교현장에서 부과되는 직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 경험이 없는 예비교사들의 발표식의 설명방식만으로는 이해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요컨대, 이들은 토의식 방법을 통해 배운 이론을 실천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직접 평가하는 수업으로

평가방식에 따라 교육의 성격뿐만 아니라 교과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배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은 수업평가 역시 실무수업답게 그동안 이론으로만 익혀왔던 평가이론을 실천해 보는 평가, 즉 평가실무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론 위주로 갔으니까 시험을 칠 때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는데, 실습이니까 평가하는 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평가도 우리가 교육평가에서 배우는 다양한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평가들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끼리의 동료평가를 해도 되고, 우리끼리 하는 걸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으니까 체크리스트가 정확하게 되면 좋겠고, 교수님도 학생들을 평가하고.....매주 평가 하는 식으로 절대평가를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조별 활동을 하면 조원들 간에 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 발표를 받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최영선, 수학과, 3학년)

교직이 되게 절대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체험을 했으면 중간 기말을 치지 않더라도 실제 문서작성을 하거나 뭔가를 짜는 걸로 대체 해도 괜찮을 거 같고.....수업한 방식에 따라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양유진, 주거환경학과, 3학년)

최영선과 양유진은 그동안 예비교사들이 다른 교직(이론)과목에서 배운 다양한 평가이론들을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과 연계하여, 직접 주제 또는 단원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실시하는 형식의 평가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적 서열을 중시하는 현재의 상대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4) 수업실무 시간으로

예비교사들은 실무수업 속에 수업 영역을 포함시켜 보다 현장지향적인 수업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²⁾ 물론 예비교사들은 각 전공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업시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험은 “수업지도를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수업방법 교재의 개요(실라버스)에 따라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藤田由美子, 2006; 134)된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과과목에서 보면, 제가 지도안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혼자 자기가 준비한 대로 그 방식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하면서

2) 교과교육은 전공 필수 요소로서, ‘교수-학습지도법, 교과교재연구법, 교과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교수-학습지도법은 교육실습에 대비하여 각 전공별로 수업시연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예비교사들은 수업시연만으로 수업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 교과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시연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다. 첫째, 수업시연의 경험이 예비교사 각 개인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왜냐하면 주로 조별 차원에서 수업시연을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경험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개별적 경험의 기회를 얻어도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로서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짜여진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수업시연이 현장의 역동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됐을 때 '과연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수업 하는 것과 나가서 그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그 방식대로 그냥 잘 흘러갔는데 다른 데 나가서 수업 시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방식대로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잘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배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과목이라면 교사가 되었을 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이은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수업실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발표 수업을 하는데 발표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교사가 될 사람들로써 발표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다양한 예시와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줄줄 읽고, 앞에 다른 사람들이 뭐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준비해 온 것만 읽는 그런 거는.....서로 지적을 하고 고쳐가면서 수업 시연의 기술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과목은 없거든요.(장설희, 예술문화영상학과, 2학년)

이은지의 경우, 현재 교과교육의 한 영역으로써 하는 수업시연은 일상 수업에서 부딪치게 될 혼란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예비교사들은 교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설희의 경우, 현재의 발표수업이 수업실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수업시연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설계 속에서 학습자를 고정된 실체로서 대상화해서 하는 발표 수업은 실질적인 교육적 경험으로 전환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이들은 교직실무 수업이 실제 수업상황을 고려한 수업실무가 되기를 기대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직소양과목으로 편성된 교직실무과목이 과목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 그 향방을 잡아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에 있는 한 대학을 선정하여 교직실무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였다. 인터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은 교직실무과목이 일반 교직이론과목들에 비해,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과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기능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범주화될 수 있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는 교직실무수업은 교직수행에 있어 필요한 행정 및 사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는 교직실무수업은 일상적인 교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교원들의 처우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이었다.

다음으로,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제언들 역시 '수업 내용적 측면'과 '수업 방법적 측면'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인 교직실무 수업 내용적 측면에서의 제언은 '교과내용의 축소와 차별화, 현장성에 대한 민감, 수업실무에 대한 요구'를 들 수 있다. 후자인 교직실무수업 방법적 측면에서의 제언은 '직접 해보고, 토론하고, 평가하고, 수업실무 경험'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직실무과목'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제언에 있어서 전공학과별 차이는 거의 볼 수 없었지만, 학년 간 차이는 다소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2학년은 교과 내용적 측면에서는 '교과내용의 축소'에, 수업 방법적 측면에서는 '토론식 수업과 수업실무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교직 활동 전반에 관심을 보이는 3학년에 비해, 2학년들은 '수업관련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학년일수록 교직을 행정업무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교직소양과목으로서 교직실무과목의 향방을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양'과 '실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개념적 합의는 궁극적으로 교과 내용의 지식과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며, 결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둘째, 여타 교직이론과목들과의 차별성이 요구된다. 단순히 이론지향적인 교직과목들의 대응으로 교직실무과목이 아니라, 교직소양과목으로서 실무과목의 성격과 부합하는 내용과 방법들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한 예로, 기존의 영역별 분리가 아닌 수업과 생활간의 연계, 즉 멀티모드시스템(multimode system)을 동원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과 실제의 조화가 보다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교직실무과목은 다른 여타 교직이론과목과 달리,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예비교사들이 배운 이론들을 현장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수업실무'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교사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실제 현장 수업에서 잘 할 수 있을까?'이다. 따라서 실무수업에서 현장의 일상수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한 학기 동안 한 번 이상의 일상 수업을 견학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업연구회와 같은 형식을 띤 수업실무의 장을 마련하여 일상 수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실경영 또는 수업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수업, 교실 구조화, 학급조직, 일정관리, 기록관리, 학생 슈퍼비전, 교실환경관리 등"(Roe & Ross, 1994)과 같은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예비교사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교직 관련 행정 및 사무 처리나 수업실무와 같은 내용은 직접 실행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토의의 장을 마련하여 공유와 협상을 이루어내는 과정들을 경험하도록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수업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제안들은 무엇보다 교직소양과목으로서 실무과목이 과목적 정체성을 갖지 못한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목적 정체성은 교과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와 제안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직과목의 실례를 거울삼아, 자칫 교직실무과목이 실무이론과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출발단계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강경석 외(2011). 중등교직실무, 서울: 교육과학사.
- 강봉규·강명희(2011). 새로운 교직실무, 서울: 태영출판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61호, 12월 31일.
- 김남순 외(201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 2007-161호)후 일반교원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의 운영 실태, 특수교육학연구 45(3), 253~272.
- 김명수 외(2010).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 김병찬(2003). 일반대학 학생들의 교직과정 이수 동기 및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교육연구 20(2), 23~53.
- 김종운 외(2010). 예비교사를 위한 교직실무, 서울: 동문사.
- 김현수 외(2011). 신교직실무, 서울: 태영출판사.
- 김호식 외(2007). 특수교육 교원양성 구조와 교육과정 요구 분석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박석일(2010).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및 교직소양 과목 운영의 실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현 · 서유진 · 나경은(2010). 예비교사의 통합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특수교육학개론 교직과 목의 운영방안 모색: 미국대학의 강의계획서 분석으로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3), 129~161.
- 송기창 외(2009). 중등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 신경림(2007). 질적연구 방법, 서울: 현문사.
- 이대식(2002). 초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장애아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 교육의 방향, 초등교육연구 15(1), 167~187.
- 이명자 외(2010). 예비 현직교사를 위한 교직실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이병환 외(2010). 교직실무(예비교사를 위한 지침서), 서울: 교육과학사.
- 장혁표 외(1992).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교직과정 내용의 평가와 그 개선, 부산대교육연구 2, 49~95.
- 정미경 외(2011).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초·중등 교원의 요구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287-306.
- 주상덕 · 이칭찬(2009). 교직실무이론, 서울: 동문사
- 황순영(2006). 초임 특수교사의 교직생활 적응을 위한 임파워먼트 강화 효능성 탐색, 수산해양 교육연구 18(3), 355~367.
- 藤田由美子, 손우정 역(2006).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 서울: 에듀케어.
- Dilthey, W. 이한우 역(2005). 체험 · 표현 · 이해, 서울: 책세상.
- Lefèbvre, H. 강수택 역(1998). 앙리 르페브르의 유토피아적 일상생활 비판론,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현대 사회학의 이해, 48~81, 서울: 민음사.
- Lotie, D. 이인효 외 역(1991). 교사와 교직: 사회화 과정의 한계, 교육과 사회, 289~326. 서울: 교육과학사.
- Miller, P. S., & Stayton, V.D.(1998). Blended Interdisciplinary teacher preparation in early education and intervention: a national study.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 49~58
- Popkewitz, S. T. 김인용 · 이영만 역(1988). 교육 연구의 패러다임과 이데올로기, 서울: 도서출판 광야.
- Roe. D. B., & Ross. P. E.(1994). *Student teaching and field experiences handbook(third edition)*. Prentice-Hall, Inc.
- Sirotnik, K. E.(1990). Foundational studies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4(5), 346~351.
- Tacussel, P. 박재환 외(편역)(2002). 일상생활의 비판과 이해, 일상생활의 사회학, 190~205, 서울: 한울.

-
- 논문접수일 : 2012년 07월 09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07월 23일
2차 - 2012년 07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08월 03일